

아, 쌍천만 감독 또 실패... "한국영화 안 변하면 죽는다"

최동훈·윤제균 이어 김용화도 흥행 실패 '더 문' 50만 관객도 힘들어... 최악의 결과 코로나 사태 후 신작 쌍천만 감독들 쓴맛 "팬데믹 후 한국영화 패러다임 변화 확산" 업계 "예전 방식 한국영화 더 안 통한다" "새 감각 가진 창작자 투자해야" 시각도

쌍천만 감독이 또 무너졌다. 지난해 여름 '외계+인 1부' 최동훈 감독에 이어 올해 여름엔 '더 문' 김용화 감독이 흥행에 실패했다. 두 사람보다 사정이 낫긴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영웅'의 윤제균 감독을 포함하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탄생한 쌍천만 감독 4명(최동훈·김용화·윤제균·봉준호) 중 3명이 고구려진 게 된다. 국내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이 상황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작년 '외계+인 1부'에 이어 '더 문'의 스코어를 보면서 한국영화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판단을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50만도 쉽지 않은 쌍천만 감독

지난 2일 공개된 '더 문'은 믿고 싶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7일까지 누적 관객수는 38만명. 현재 추세로 보면 100만 관객을 넘어 50만명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작품 손익분기점은 600만명이다. '더 문'은 김용화 감독이 연출했다. 김 감독은 '신과 함께-죄와 벌'(1441만명) '신과 함께-인과 연'(1227만명)을 1000만 영화로 만

들었다. 이 외에도 김 감독 필모그래피엔 '국가대표'(839만명) '미녀는 괴로워'(608만명) 등이 포진해 있다. 그는 한국영화 흥행 귀재 중 한 명이자 한국 상업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영화 흥보사 관계자는 "언론 시사 후 '더 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고 경쟁작도 많아 흥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긴 했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손익분기점이 750만명이었던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부'는 153만명이 보는 데 그쳤고(이 영화는 2부도 남아 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0만명은 봐야 수치가 맞았던 윤제균 감독의 '영웅'은 327만명에서 멈춰 섰다.

◇또 그때 그 방식? 더는 안 통해

업계는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 변하지 않으면 고사한다는 것이다. 물론 영화계에서 실패는 언제나 있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1년

사이 쌍천만 감독 4명 중 3명이 연달아 흥행하지 못하고 그 중 2명은 '망했다'는 말이 어울리는 수준의 성적을 낸 것을 일삼적 흥행 실패로 규정할 수 없다. 국내 제작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 한국 상업영화를 상징했던 감독 3명이 코로나 사태 이후 모두 관객 외면을 받았다 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국영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처럼 '더 문'은 진부해도 너무 진부한 스토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 관련 사이트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더 문'에 관한 리뷰를 종합해보면, '눈물 짜내기 식 이야기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모아진다. 김 감독의 영화를 꾸준히 따라온 관객 역시 '배경만 다를 뿐 전작들과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혹평했다. 스토리텔링에 문제가 생기자 '더 문'이 보여준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는 관객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나온 '외계+인 1부'와 '영웅'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외계+인 1부'는 최 감독의 전작들을 혼합해서 보여줬을 뿐 사실상 동어반복에 가깝다는 비판이 다수였고, '영웅'은 윤제균식(식) 도식적 연출 패턴이 무지컬 영화에서도 답습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시대가 변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사태 3년이 영화계를 완전히 다른 시대로 옮겨놨다고 본다. 영화계가 코로나 사태 이전 한국영화 전성기를 뛰어넘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상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감독도, 어떤 영화도 흥행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팬데믹 이후 티켓값이 오르고,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확장하면서 영



(왼쪽부터) 김용화·윤제균·최동훈 감독.

화를 고르는 관객의 눈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졌다.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검증된 작품이 아니면 리뷰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움직인다. 관객은 영화관에서만큼은 TV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데 영화계가 아직은 코로나 사태 이전 영광의 시대에 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영화계 내·외부의 일관된 목소리다.

국내 대형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관객이 영화를 안 본다는 것도 변명이라고 했다. 좋은 영화가 없어서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는 것이 관객이 극장에 오지 않아서 흥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범죄도시' 2·3편은 1000만명을 넘겼고, '엘리멘탈'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며 "관객은 영화만 좋다면 돈과 시간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두하는 세대교체론

쌍천만 감독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영화계를 이끌 젊은 세대 연출가들이 등장해야 할 때라는 말도 나온다. 쌍천만 감독 3인이 활약한 시기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까 약 20년 간이다. 한국영화 부흥기와 시기가 일치한다.

김용화·최동훈 감독은 1971년생, 윤제균 감독은 1969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영화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는 걸 인정한다면 쌍천만 감독들 예게만 계속 의지할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을 위해 새로운 감각의 영화를 보여줄 창작자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쌍천만 감독들도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영화계에서 안정적인 기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내 대형 제작·투자·배급사들이 이제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계+인 1부' '영웅' '더 문'이 모두 CJ ENM 영화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뉴진스 '슈퍼샤이', '핫100' 4주연속 진입



정국을 비롯한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외에도 K팝 그룹의 미국 빌보드 내 차트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12일 자)에 따르면,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미니 2집 '겟 업(Get Up)' 선공개곡이자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인 '슈퍼 샤이(Super Shy)'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77위에 오르며 4주 연속 차트인 했다. 이 곡은 지난주 '핫100'에서 자체 최고 순위인 48위를 찍었다.

앞서 뉴진스는 '핫100'에서 K팝 걸그룹 신기록을 썼다. '슈퍼 샤이' 외에 'ETA'와 '쿨 위드 유(Cool With You)'까지 '겟 업' 트리플 타이틀곡 모두를 '핫100'에 올렸다. 지금까지 '핫100'에 3곡 이상 동시 진입시킨 K-팝 그룹은 남녀 통틀어 방탄소년단과 뉴진스뿐이다.

아울러 뉴진스는 앞서 '디토(ditto)', '오엠지(OMG)'에 이어 '핫100'에 지금까지 총 다섯 곡을 올리는 기록을 썼다. '디토'와 'OMG'는 각각 이 차트에 5주와 6주간 머물며 저마다 최고순위 82위와 74위를 찍었다. '슈퍼 샤이'가 '디토'와 'OMG' 기록을 넘을 지 관심이다.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점수와 음반 판매량 환산 수치 등을 더하는 '핫100'과 달리, 전 세계 200여 지역에서 수집된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다운로드)을 토대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뉴진스의 강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빌보드 글로벌 200'에 '겟 업'에 실린 6곡 모두 여전히 순위권에 들었다. '슈퍼 샤이' 8위, 'ETA' 28위, '뉴 진스' 53위, '쿨 위드 유' 71위, 'ASAP' 113위, '겟 업' 184위다. 이밖에 'OMG'

117위, '디토' 133위, '하이프 보이' 195위다.

'글로벌(미국 제외)'에선 이 곡들의 순위가 더 높다. '슈퍼 샤이'가 3위, 'ETA'가 10위, '뉴 진스'가 32위, '쿨 위드 유'가 45위, 'OMG'가 72위, 'ASAP'가 78위, '디토'가 81위, '하이프 보이'가 115위, '겟 업'이 153위다.

앞서 예고됐던 것처럼 '겟 업'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6위에 올라 해당 차트 2주 연속 '톱 10'에 머물렀다.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피터피티)'의 '큐피드(CUPID)'는 이번 주 '핫100'에서 41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보다 13계단 하락이나 해당 차트에 20주 연속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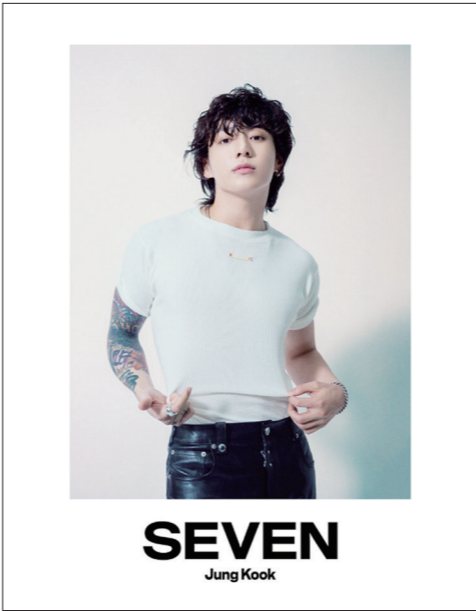
대세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의 정규 3집 '★★★★(5-STAR)'(파이브스타)는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51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33위에서 18계단 하락했으나, 해당 차트에 1위로 데뷔한 음반으로 9주 연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스트레이 키즈 자체 최고 기록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에 이어 9주 연속 '빌보드 200' 톱60위 안에 든 두 번째 K팝 그룹이 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200'에서도 방탄소년단과 뉴진스 외에 K팝 그룹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가 31위, DJ 페기 구의 '잇 고즈 라이크' 나나나(It Goes Like Nananan)'가 60위, 그룹 '여자아이들의' '퀵'이 91위, 그룹 '르세라핌'의 '이브, 프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가 108위, 그룹 '아이브'의 '아이 엠'이 129위다.

한편, 이번 주 '빌보드 200' 1위는 미국 힙합스타 트래비스 스콧 '유토피아(Utopia)'가 차지했다. 미국 컨트리 스타 모건 윌렌의 '라스트 나이트(Last Night)'가 '핫100' 정상에 또 탈환했다. 스콧은 캐나다 힙합 제왕 드레이크가 피쳐링한 '멜트다운'을 3위에 올린 걸 비롯 '핫100'에 총 '유토피아'에 수록된 19곡을 모두 올렸다. '글로벌 200' 1위는 예고된 것처럼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곡 '세븐'이 차지했다.

정국, 빌보드 글로벌 두 차트 3주연속 1위...K팝 솔로 처음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K팝 솔로 신기록을 주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빌보드 선전

가했다. 8일(현지시간) 빌보드에서 발표한 최신 차트(8월 12일 자)에 따르면, 정국의 첫 공식 솔로 싱글 '세븐(feat. Latto)'은 빌보드 내 글로벌 차트엔 '글로벌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1위에 올랐다.

정국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지역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해당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한국 솔로 아티스트가 빌보드 '글로벌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건 정국이 처음이다.

또한 '세븐'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 30위에 올랐다. 이 곡은 지난 달 14일 발매된 지 일주일 만에 '핫100' 1위(7월 29일 자)로 직행했고, 이후에도 큰 인기를 누리며 3주 연속 상위권에 자리했다.

정국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도 빌보드 차트에서 개인 활동으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민이 지난 3월 발매한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CE)'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는 '글로벌(미국 제외)' 47위, '글로벌 200' 70위 등 19주 연속 차트에 랭크되며 장기 흥행 중이다.

앨범 세부 차트에서도 방탄소년단의 활약은 여전하다. 빌보드 '월드 앨범'에서 지민의 '페이스'가 9위,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프로프(Proof)'가 13위, '톱 커런트 앨범'에서 슈가의 솔로 앨범 '디-데이(D-DAY)'가 45위, RM의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가 56위, 지민의 '페이스'가 64위에 랭크됐다. '톱 앨범 세일즈'에서는 슈가의 솔로 앨범 '디-데이(D-DAY)'가 75위로 이름을 올렸다.

인피니트, 5년만 컴백 비하인드 공개 "오랜만에 집밥 먹는 느낌"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새 앨범 재킷 촬영 비하인드 공개

그들 '인피니트'의 새 앨범 재킷 촬영 비하인드가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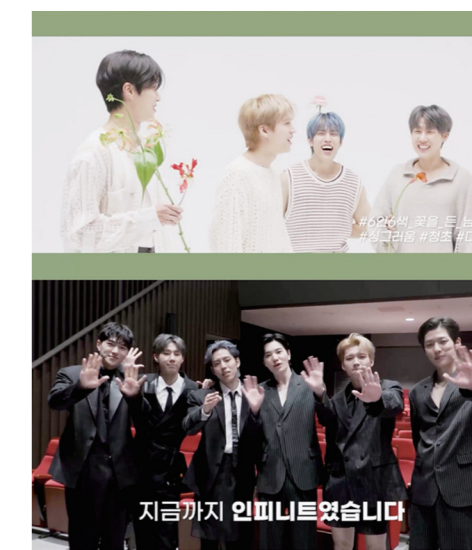
소속사 인피니트 컴퍼니는 지난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피니트의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비긴(13egin)'의 재킷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비긴'의 재킷 사진 촬영에 임하는 인피니트의 다양한 모습과 인터뷰가 담겼다.

가장 먼저 스튜디오에 도착한 엘은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는 스태프와 멤버들을 위해 양손 가득 커피를 사 들고 오는 섬세한 면모를 보였다. 엘에게 커피를 나눠 받은 멤버들은 "잘먹을게"라며 카페인 수혈과 함께 기분 좋게 촬영을 시작했다. 인피니트는 "너무 오랜만이라 아이들 놀이를 하는 것 같다"라며 즐겁게 웃고 장난치다가도 큐 사인이 떨어지면 금세 돌변한 눈빛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연기를 선보이는 등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내 감탄을 자아냈다.

멤버들은 "몸 진짜 좋다"며 나나 할 것 없이 민소매 의상을 입은 장동우의 몸을 더듬으며 칭찬을 쏟아냈다. 재킷 촬영 당시 MBC TV 드라마 '넌버스에' 출연하고 있던 엘은 촬영 중간중간 빈 시간에 부지런히 드라마 대본을 읽으며 연습에 집중했고 "재킷 촬영이 끝나면 아침에 드라마 촬영에 가야 한다"며 대세 배우의 바쁜 일상을 전했다.

김성규는 "굉장히 바쁜데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작업하느라 힘들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멤버들도 많이 도와주고 함께 결정해서 잘 작업하고 있다"라고 새 앨범 작업 근황을 전하는가 하면 엘의 촬영분을 확인하고 "잘생겼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비긴'이 인피니트와 인스피릿에게 어떤 앨범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상열은 "이번 앨범이 저희와 인스피릿에게 '우리 둘은 언제나 견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해 몽클함을 자아냈다. 장동우는 "멤버들의 경험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 처와 호흡, 농후함, 모든 것들이 결합돼 지금이 작품들이 나온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인피니트는 오는 19-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츠(옛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컴백 어게인(COMEBACK AGAIN)'을 연다.